



피아니스트 유영욱(왼쪽),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김홍재

광주시향 '교향악 축제' 광주서 첫선

피아니스트 유영욱 협연
오늘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서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42회 정기연주회 '2019교향악축제 프리뷰; 전람회의 그림'이 1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오는 13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19교향악축제'의 프로그램을 광주 시민들에게 먼저 선보이는 자리다.

김홍재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음악회는 무소르그스키의 교향시 '민동산에서의

하룻밤'으로 시작한다. 이어 피아노의 신,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선보인다.

남만주의 협주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 최고의 걸작을 세계적 오케스트라의 협연무대에 오르며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유영욱과 협연한다.

피아니스트 유영욱은 1998년 제13회 스페인 산탄데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스페인 국립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심포니, 쾰른 오케스트라, 비엔나 챔버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후반부는 다시 무소르그스키로 돌아와, 그의

대표작인 '전람회의 그림'으로 마무리한다. 김홍재 지휘자의 대표 레퍼토리이기도 한 이 곡은 무소르그스키가 친구, 하르트만의 유작 전시회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이다. 색과 음의 조화를 꾀한 무소르그스키의 놀라운 상상력에 라벨의 편곡이 관현악적 색채감을 더했다.

김홍재 상임지휘자는 "수많은 명곡 중에서도 광주시향이 잘할 수 있는 곡목으로 준비했다"며 "단원과 청중이 함께 만족하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단원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매 정기연주회가 시작되기 40분 전, 대극장에서 공연해설 프로그램을, 클래식토크를 운영한다. 작곡가 강보란이 해설

자로 나서며 티켓을 소지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매년 국내 최대의 클래식축제인 '교향악축제'에 참석하고 있는 광주시향은, 특히 지난해 공연에서 김홍재 상임지휘자의 섬세한 바톤 테크닉과 이를 통한 집중력 있는 연주로 여러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홍재 상임지휘자 시대를 통해 안정감을 더해가고 있는 광주시향의 2019년 교향악축제 프로그램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홍재 상임지휘자는 수도권 클래식계에서 매우 높은 인지도와 함께 인기 있는 지휘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클래식 팬들의 관심을 증명하듯 이번 예술의전당 공연 2,200석의 좌석이 거의 매진되는 등 타 시도교향악단에 비해 높은 티켓 판매율을 기록 중이다.

티켓 가격은 1~3만 원이며 7세 이상 입장 가능하다. 문의 062-524-5086. /이보람 기자



박상용과 **떠나는** 역사여행
〈46〉 조선 5대 궁궐

서울에 궁궐이 5개나 있어요?

저는 역사체험학습 여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프로그램을 만들어 광고하고 참가자를 모집해 주제 여행을 떠나지요. 어느 지역을 가장 많이 갔을까? 우리나라 어느 곳에 역사유적이 가장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나 아님 다른 지역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이전 조선왕조의 도읍이었던 서울을 가장 자주 찾습니다. 서울은 조선의 시작과 흥성, 시련과 재기, 그리고 멸망까지 500년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기만으로도 서울은 갈 곳이 가득하고, 특히 조선의 5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덕수궁) 모두가 도성 안에 모여 있습니다.



창덕궁 후원에 있는 규장각 2층 건물인 주함루. 1층은 왕실의 도서를 보관하는 규장각이고, 2층은 열람실이었는데, 이 열람실을 주함루라고 한다.



창덕궁 후원에 조성된 인공 연못과 열 십(十)자 모양의 정자 부용정. 조선시대 왕이 과거에 급제한 이들에게 주연을 베풀어 축하해 주던 장소로 '부용'은 연꽃을 뜻한다.

경복·창덕·창경·경희·경운궁 모두 도성 안 자리 세계유산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부용정·주함루

회의를 느껴 이전의 터전인 개경으로 옮겨갑니다. 이어 왕자의 난의 주역인 조선 3대 태종은 한양으로 재전도하면서 왕자의 난의 장소인 경복궁을 피하려, 새로운 궁궐 창덕궁을 짓습니다. 이로부터 한양에 두 궁궐이 정궁과 이궁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궁궐은 임금이 업무를 보고 직계 가족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세자를 제외한 왕자와 공주들은 결혼 후 궁궐을 떠나 살지만, 왕이었던

남편을 잃은 대비들은 그대로 궁궐에 머물렀기에 그들을 위한 공간으로 창덕궁 옆에 창경궁이 이어집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세 개의 궁궐이 공존했습니다.

건국 후 정확히 200년이 흐른 뒤 일어난 큰 시련 임진왜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모두 불에 타입니다. 국경 끝의 주까지 피난갔던 왕이 돌아오니 머물 곳이 없습니다. 왕족의 집을 빌려 임시궁궐로 삼습니다. 임금이 선조는 지금

의 덕수궁 자리에, 세자 광해는 지금의 경희궁 자리에서 그 두 곳도 궁궐이 되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식 궁궐로서 창덕궁이 복원됩니다. 임란 후 내내 폐허로 남겨졌던 조선 첫 궁궐인 경복궁은 고종때 와서야 왕권 회복의 기치를 내걸었던 흥선대원군에 의해 다시 지금의 규모로 재건됩니다. 이로써 5개의 궁인 경복, 창덕, 창경, 경희, 경운궁이 존재했지만, 나라는 차츰 차츰 일제에 빼앗기면서 궁궐 역시 그 역할이 없어지게 되지요.

이전의 왕이 없어진 현대 민주시대에 궁궐은 관광지로써 기능을 합니다. 서울 5대 궁궐이 함께 묶여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면 좋으면, 궁궐 중 창덕궁이 유일하게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대 궁궐 중 저는 경복궁을 가장 자주 찾습니다. 첫 궁궐이기도 하고, 궁궐에서 전해지는 웅장함이 들어있어 역사여행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창덕궁을 제일 좋아합니다. 조선 임금이 가장 많이 머물렀다는 창덕궁에도 궁궐 위엄과 관련된 여러 꺼리가 있지만, 창덕궁은 후원이 있음으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후원에 뭐가 있는데요? 후원에 바로 들어서면 정조임금의 규장각이 있습니다. 규장각이 한옥 건물로 덩그러니 홀로 있지 않고, 주함루라고 하는 2층 건물에 그 앞은 맑은 못이 넓게 펼쳐 있으며, 부용정이라는 정자가 마주 보고 있습니다. 건물이 못에 비쳐지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그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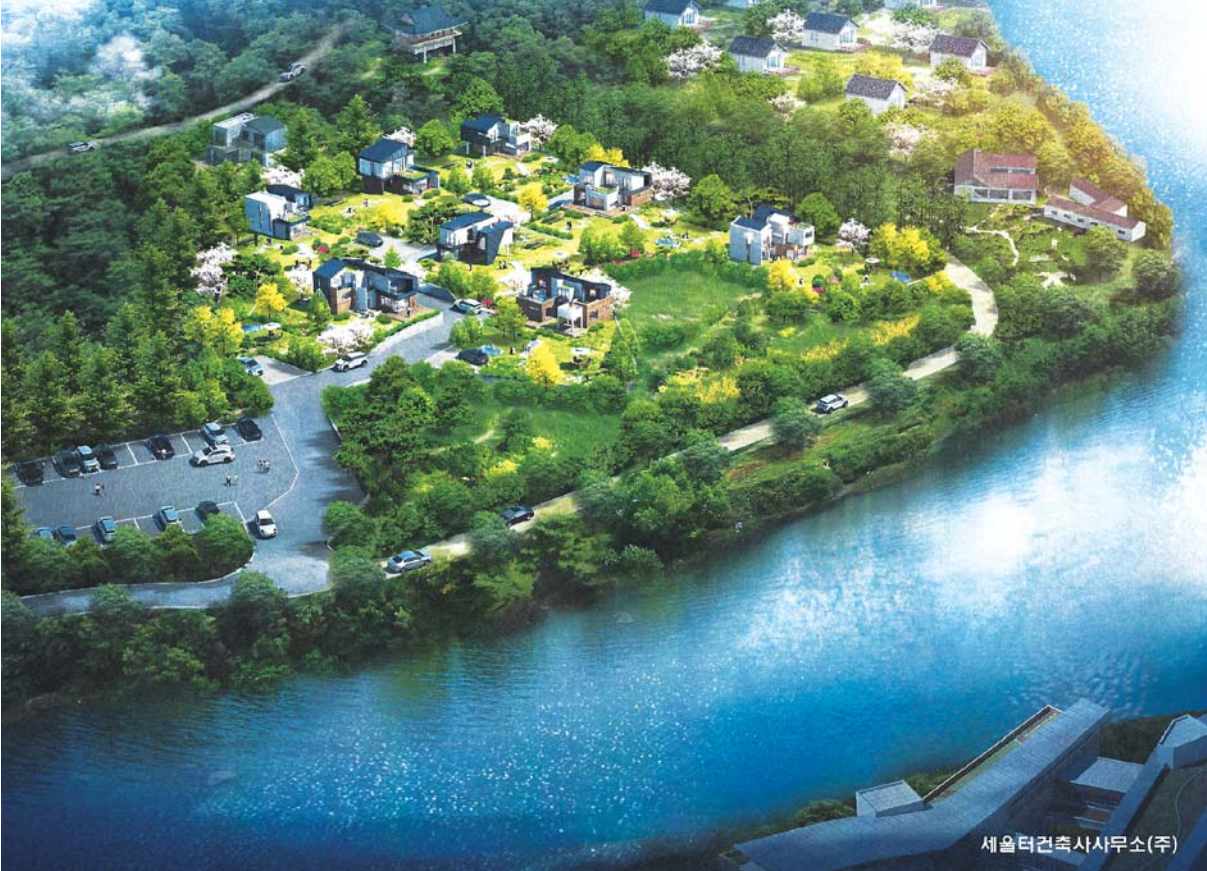
애련지, 의두함, 불로문, 연경당, 관람정, 존덕정 등을 지나 옥류전에 이르면 조그마한 건물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실 한 칸 크기의 논의 있습니다. 왕이 직접 농사를 지었던 곳이고, 지금도 벼를 키워 쌀 생산을 합니다.

후원은 보호차원에서 매시각 정해진 인원만 들어갈 수 있어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창덕궁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후원해설사를 따라서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현대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꽃피는 봄날과 단풍이 들어가는 늦은 가을이면 예약 시스템 오픈하자마자 바로 마감됩니다. 이 글 쓰는 시간 홈페이지 들어가더니 전체 매진입니다.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 인터넷 예약과 함께 일정 수량은 현장 판매합니다. 문 열기 전 일찍 가서 문 열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 정도 수고 들일 만 하니 서울 가실 일 있음 창덕궁 후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동행(historytour.co.kr) 대표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서울터런속사사무소(주)

나주, 다도담 부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전원주택, 펜션, 별장등 최고장소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토목공사 완료
 - 150평~200평씩 분할 매매 가능
 - 매매-14억2,3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